만성 간염약 '아데포비르' 美 FDA 신약접수

길리어드社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신속심사 요구'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社는 미국 FDA에 만성 간염치료제로 아데포비르 다이피복실(adefovir dipivoxil)을 신약접수 했다고 말했다

아데포비르 다이피복실은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nucleotide analogues)로 분류되는 약물로 인체에서 바이러스 복제에 관여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폴리머레이즈(HBV DNA polymerase)를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길리어드社는 아데포비르 다이피복실을 B형 간염 이전 치료여부에 관계없는 만성 간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접수시켰다. 이는 3상 임상결과, B형 간염 'e' 항원 양성 환자나 음성 환자, 라미부딘 저항성 B형 간염 환자에게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길리어드社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는 의학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치료 신약으로 간주하여 심사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심사를 해줄 것으로 FDA에 요구했다. 유럽에서도 조만간 아데포비르 다이피복실 시판승인을 위해 신약 접수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 간 등 5대 癌 검진 표준프로그램 완성

2005년 시행. 적정 검진연령 · 주기 등 제시

위 · 간 · 대장 · 유방 · 자궁암 등 5대 암에 대한 '표준 암 검진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보건복지부는 5대 암의 종류별로 적정 검진 연령 · 주기 ·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 암 검진 프로그램'을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005년 시행 목표인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 내시경검사나 위장조영술을 통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간염 바이러스(B, C형)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나 항체가 모두 음성인 30세 이상 남자와 40세 이상 여자는 6개월마다 복부초음파검사를 통해 간암검진을 받는 것이 초기 발견에 효과적이다.

또 간염 바이러스(B, C형)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나 항체가 모두 음성인 30세 이상 남자와 40세 이상 여자는 6개월마다 복부초음파검사를 통해 간암검진을 받는 것이 초기 발견에 효과적이다.

이밖에 유방암의 경우 35~39세에는 의사의 임상진찰로 충분하지만, 40세 이상에서는 1~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을 통한 검진을 받고, 자궁암의 경우 30세 이상 모든 여성이 2년 주기로 자궁질경부 도말세포검사'(Pap Smear)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복지부는 지난 99년부터 시행중인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위 · 유방 ·

자궁암 무료검진사업에 이를 시범 적용한 뒤 오는 2005년부터 전국민 암 검진 체계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병원 이승규 교수팀이 92년 간이식 첫 시행 후 10년 만인 지난 1월 국내서는 처음으로 500례를 돌파했다.

피오글리타존 복용 후 간 손상 사례 발견

美연구진 '6개월 투여 후 40대 남성 중증 간부전 발생'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 복용 후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난 사례가 인터널 의학정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지에 보고됐다 미국 굿 사마리탄 종합병원의 루이즈 D. 메이 박사와 연구진은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한 49세의 남성에서 간 손상이 나타난 사례를 소개했다. 이 환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1일 30 밀리그램의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해왔는데 6개월 후 심각한 간 기능 부전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피오글리타존 투여를 중단시키고 간 생체검사를 한 결과 약물 독성으로 인해 간세포 담즙생성중지가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피오글리타존을 투여 중단하자 간 효소치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연구진은 피오글리타존 투여시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간염에 유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 간이식 메카 서울아산병원 500예 돌파

1월 중순. 간 · 신장 동시 이식 등 '최초' 성공 술해

서울아산병원(구 서울중앙병원) 이승규 교수팀이 1992년 간이식 첫 시행 후 10년 만인 지난 1월 국내서는 처음으로 500예를 돌파했다. 병원은 92년 간이식을 첫 시도한 후 매년 증가하기 시작, 99년부터는 100예 이상을 실시하면서 국내 간이식의 메카로 자리매김했고 무수한 '최초' 수식어를 만들어 냈다.

병원 간 이식팀은 이 기간 국내 최초로 뇌사자를 이용한 간 신장 동시이식을 비롯, 성인 생체 간이식, 뇌사 장기기증자의 간을 분리해 2명의 환자에 이식하는 분할이식을 성공했다.

또 소아 뇌사 기증자의 간을 급성 전격성 간부전을 앓는 24세 청년에 이식, 소아 뇌사 기증자의 간을 성인에 이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변형우엽 절제술 개발과 기증자 간이 너무 작아 이식을 못하는 상황서 2명의 기증자 간을 한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는 세계이식학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병원이 성공

울산대학교병원은 "장기이식센터 간 이식팀이 말기 간경변 20세 女환자에게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 성공리에 끝났다"며 "5일이 지난 지금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한 간이식의 의미는 또 있다 우리 나라 성인 간이식 대상자의 90퍼센트는 B형 간염환자로 90년대 초반 만에는 이식 후 높은 간염 재발율과 이로 인한 사망률 역시 높아 미국에서는 이식 자체를 금기시했다. 하지만 병원은 적극적인 연구와 수술법 등을 개발해 고단위 B형 간염 항체면역글로블린 주사를 이식수술 도중부터 주사, 재발율을 2퍼센트대로 줄이면서 안전하게 B형 간염환자도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원 관계자는 "500예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전체 간이식의 60퍼센트에 해당된다"며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교수들을 비롯, 전체 팀원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지난 1월15일 500예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월 초 홍창기 원장 및 이승규 교수, 민병철 전 원장, 이상준 전국 간이식인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관련기사 5면)

울산대병원 '생체 간이식수술' 첫 성공

사촌언니, 월슨병 여동생에 간 제공 상태 양호

부산 · 경남 울산지역 최초로 시도된 성인 생체 간이식 수술이 성공리에 마무리 돼 관심을 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장기이식센터 간 이식팀이 말기 간경변 20세 여환자에게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 성공리에 끝났다"며 "5일이 지난 지금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번 이식환자는 간에서 구리가 배설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윌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어머니와 남동생의 간이 기증에 적합치 않아 사촌언니의 간을 기증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간의 오른쪽 절반을 기증한 언니의 경우 2주 정도 지나면 원래 크기로 완전 재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외과 나양원 간이식팀장은 수술과정에 대해 "간 기증자의 안전성 보장과 함께 수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간이 제공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수술 전과정에 걸쳐 최첨단 의료지식 · 기술 · 의료장비의 3박자가 조화롭게 집결돼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은 "생체 간이식 수술은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고난도 수술중 하나"라며 "작년 뇌사자의 간 신장 적출수술에 이어 고난도 시술에 성공,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잠 많이 잘수록 사망확률 높다'

매일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6~7시간 잠을 자는 사람보다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신과 대니얼 크립케 교수팀은 일반 정신과학회회보 2월 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하루 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6시간 30분~7시간 30분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12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30~102세의 미국인 1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8시간 30분 이상 잠을 자거나 4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6~7시간 수면자에 비해 사망률이 15퍼센트 더 높았다. 또 9시간 자는 사람은 20퍼센트, 10시간 자는 사람은 35~40퍼센트나 사망확률이 높았다.

크립케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 하루 평균 7시간 정도의 수면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밝혀졌다"고 말했다

B형 간염 보균자 취업 제한 규정 헌소(憲訴) 추진

B형 간염 보균자의 권익모임인 '간(肝) 사랑 동우회'와 장애우권익 문제 연구소 등은 국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이 B형 간염 보균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신체검사는 직무 수행의 적격성을 사전에 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지를 거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연구소 안선영 자문변호사는 "B형 간염 보균자 등 모든 국민은 헌법상 똑같이 일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간염바이러스 보유 등을 이유로 입사시험에서 면접을 볼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0년 10월 B형 간염을 전염병 제 1군에서 예방 가능한 제 2군에서도 뺐지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14개 불합격 판정항목이 만성 활동성 간염을 포함하고 있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B형 간염 보균자의 권익모임인 '간(肝) 사랑 동우회'와 장애우권익 문제 연구소 등은 국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이 B형 간염 보균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